

-기가 무섭게

~하기가 무섭게 — ~하자마자 곧바로

‘~하자마자’를 나타내는 표현 중 가장 빠른 표현입니다. 무섭게라는 말처럼, 두 번째 일이 놀라울 정도로 곧바로 이어집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사	-기가 무섭게	آمد → 앓기가 무섭게
짧은 형태	-기 무섭게	앓기 무섭게
ㄹ 어간은 ㄹ 유 지	-기가 무섭게	만들기가 무섭게
뒤 절	보통 과거	전화가 올렸다
시제를 붙이지 않 음	어간에만 붙음	앓았기가 무섭게는 틀림
중립적 표현	-자마자	앓자마자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 -기가 무섭게를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ㄹ도 유지되며, 앞에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 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: -기 무섭게.

두 일 사이의 간격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: 자리에 앓기가 무섭게 전화가 올렸다.입니다. 말하는 사람이 효과를 위해 과장하는 것이며, 보통 약간 어이없어하는 말투입니다.

이 표현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쓰므로 뒤 절은 보통 과거형입니다. 계획이나 명령에는 맞지 않습니다.

중립적인 다음 표현과 비교하면 -자마자 이 표현은 강조되고 생생합니다. 무섭게가 감정적인 색채를 더합니다.

■ 예문

- 1 자리에 앓기가 무섭게 전화가 올렸어요.
- 2 문을 열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밀려들었다.
- 3 음식을 내놓기가 무섭게 다 없어졌어요.
- 4 퇴근하기 무섭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.
- 5 새로 만들기가 무섭게 주문이 들어옵니다.
- 6 눕기가 무섭게 잠이 들어요.

■ 비교

-자마자

시간 간격은 같고 느낌이 다릅니다. -자마자는 중립적이라 어떤 문체에 서든 쓰이고, -기가 무섭게는 강조되며 약간 어이없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

앓자마자 전화가 왔어요. (중립) / 앓기가 무섭게 전화가 왔어요. (앓자마자 곧바로)

-자

-자는 서술에 쓰는 문어적인 ‘~하자마자’입니다. -기가 무섭게는 생동감 있는 말이나 개인적인 이야기에 어울립니다.

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들어왔다. (서술) / 열기가 무섭게 밀려들었어요. (구어)

-고 나서

-고 나서는 어떤 간격이든 허용하지만, -기가 무섭게는 간격이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.

앓고 나서 전화했어요. (앓은 다음 전화함) / 앓기가 무섭게 전화가 왔어요. (즉시)

■ 주의

✗ 자리에 앓았기가 무섭게 전화가 올렸어요.

○ 자리에 앓기가 무섭게 전화가 올렸어요.

-기에는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 과거는 마지막 동사에 붙입니다.

✗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연락하세요.

○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락하세요.

이 어미는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이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. 지시에는 -자마자가 맞습니다.

✗ 새로 만들기가 무섭게 주문이 들어와요. — 만드기로 잘못 쓰기 쉬움

○ 새로 만들기가 무섭게 주문이 들어와요.

-는이나 -(으)니까 앞과 달리 -기 앞에서는 ㄹ이 유지됩니다.